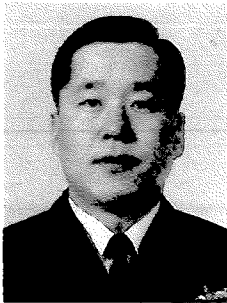


太平洋戰爭時 日本의 海洋戰略上의 失錯



合同參謀本部

中領 鄭 鎬 涉*

◇ 目 次 ◇

- I. 序 論
- II. 미·일 경쟁관계의 태동
 - 1. 대양해군으로 재탄생한 미 해군
 - 2. 잠재적(潛在敵)으로서 일본의 대두
- III. 美國의 對日 전쟁 구상
 - 1. 오렌지계획(Plan Orange)
 - 2. 우세한 해군력(항공력) 위주의 전력 건설
- IV. 日本의 對美 전쟁 구상
 - 1. 邀擊決戰 思想
 - 2. 함대결전 위주의 전력 건설
 - 3. 眞珠灣 奇襲 구상의 탄생
- V. 日本의 海洋전략상의 오류
 - 1. 자원 판단 오류
 - 2. 잠수함작전 오류
 - 3. 항공작전 오류
- VI. 結 論
- ※ 參考文獻

I. 序 論

20세기 초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일본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패권다툼은 국가정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해양전략

* 해군사관학교 및 국방대학원 졸업(안전보장학석사), 영국 Lancaster 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졸업, 영국 Lancaster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국제정치학박사), 2급 함장, 해본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처 합정전력담당, 합참 군사전략과 해상전략담당, 해본 정책 분석과장, 합참의장 보좌관(現)

그리고 설정된 해양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 건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극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드문 사례인 것 같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자국의 해양전략 및 해군력 발전과정에 유리하게 응용하고자 하는 전쟁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점을 태평양전쟁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범한 해양전략적 실착을 되새겨봄으로써 21세기 대양해군의 건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해군이 어떠한 점에 주목해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Ⅱ. 미·일 경쟁관계의 태동

1. 대양해군으로 재탄생한 미 해군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관계가 태평양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05년 러·일전쟁 전후의 국제상황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¹⁾ 미국부터 살펴보자. 구대륙에서 신천지를 찾아 이주해 온 미국민들이 건국한 미국은 무엇보다도 주변에 스스로의 영역을 구축하고 국내질서를 정착시키고자 19세기 말까지는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고립주의(Isolationism)적 대외정책을 견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먼로(James Monroe)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간섭하려는 유럽 열강에 대하여 '신·구 양대륙의 상호

1)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東京: 原書房, 1979), 제3편 제1부 전쟁의 전모 참조.

불간섭, 독립의 존중, 간섭의 경우 실력 저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먼로 독트린 (Monroe Doctrine)²⁾을 선언하였다.

정부의 주된 관심과 활동이 국가건설과 대륙 내부 문제에 집중되던 건국 초기 미국에서는 해군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이 독립한 후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두 나라의 海賊船에 의해 미국 선박이 약탈당하자 미 해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그 결과 1794년 3월 미 해군이 창설되었고, 1798년에는 해군성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그 후 남북전쟁의 비참한 경험,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혐오, 먼로 독트린 등 고립주의 정책의 여파로 미 해군은 적의 通商破壞와 沿岸防禦에 중점을 둔 소규모의 해군으로서 유지되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자 미국에서는 급속한 공업화의 영향으로 경제력이 증대하면서 현대화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이때 종전까지의 專守防禦用 미 해군이 공세적인 대양해군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미 해군대학(U.S. Naval War College)의 마한(Alfred T. Mahan) 제독이었다. 즉, 1890년 마한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이라는

2) 먼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남미에 있는 스페인의 식민지에서의 반란을 유럽제국 열강이 진압차 개입하려 하자 다음과 같은 요지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가. 미주 대륙은 앞으로 유럽제국의 식민영토가 아니다.

나. 미주 대륙에는 유럽과는 다른 정치체제가 존재한다.

다. 미국은 유럽열강이 미주 대륙에서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라. 미국은 당시 현존하던 유럽 식민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에서의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먼로 독트린은 그 후 1세기 이상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남아 있게 된다.

책을 발간하여 생산력의 증대가 해외시장을 요구하며 제품과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이 필요하고 이 해외시장과 상선대를 보호하는 것이 해군의 임무라고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해양활동을 실시하는 商船隊나 漁船隊, 그것을 보호하는 해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항만이나 조선소 등이 海洋力(Sea Power)으로서 이 해양력이 국가의 번영과 富를 가져다주고 세계 역사를 주도한다고 마한 제독은 주장하였다.

한편, 마한은 해군작전의 유일한 목적은 敵의 조직적인 전력을 파괴함으로써 제해권을 확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력의 集中을 통해 적 艦隊의 擊滅을 최고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해군작전의 건전한 원칙이라는 소위 ‘艦隊決戰論’을 주장하였다. 즉, 마한은 국력 신장이라는 국가목표에 해양력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함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해군력의 정비 필요성 등 이론적 기반을 미 해군에 견고하게 구축한 것이다.

1889년 마한이 미 해군대학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미 해군은 그의 해양력 이론을 기반으로 우수한 해군장교의 양성에 힘쓰고 종전의 통상파괴를 목적으로 하던 순양함 위주의 전력구조를 함대결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戰艦 중심의 공세적인 해군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해군성장관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도 적극적으로 미 해군을 증강시켰고, 특히 파나마 운하 건설이 시작되고 미국·스페인전쟁 결과 미국이 필리핀, 괌 그리고 하와이를 영유하게 되자 해군에 대한 미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군력의 증강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었다.

미국·스페인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유럽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은 견지하면서도 당시 미국의 실질적인 보호령이었던 하와이에서 필리핀 및 괌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太平洋帝國(a Pacific empire)을 건설하고 또 강력한 해군

을 정비하기 시작한다.³⁾ 더 나아가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중국에서 제국주의적 약탈을 자행하고 있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정치적 존엄성 준수와 통상의 자유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門戶開放 政策(Open Door Policy)'을 표방하면서 극동에서의 서구 열강의 식민지 확대 노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랫동안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던 미국이 세계정세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극동, 특히 중국에서 힘과 영향력이 나날이 팽창하던 서구 열강은 제정 러시아였다.⁴⁾ 1902년 1월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英·日同盟⁵⁾을 체결한다. 미국도 英·日同盟을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고 자국

3)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 이전만 해도 미 해군은 체계화된 전쟁계획 없이 전쟁을 치렀다. 그러다 1884년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이 창설되면서 유능한 해군장교들에게 전략과 과학적인 전쟁술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유명한 마한(Alfred T. Mahan) 제독이 제2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 당시 미 해군 지도부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운명과 제국주의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미국의 富의 원천으로서 海上交易과 강력한 艦隊 그리고 海外基地의 필요성을 신봉했고 공격적인 기질의 大英帝國 해군(Royal Navy)을 그들의 모델로 삼아 강대국 미국의 해군이 추구해야 할 적당한 전쟁목표는 완전한 승리(total victory)라고 믿었다. 이러한 미 해군의 전통적인 사고는 그 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오렌지계획(Plan Orange)의 토대가 되었고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해군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군사전략의 원동력이 된다. 미국·스페인전쟁이 미국의 군사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ames W. Hammond, Jr., "We are Products of 1898",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ugust 1998), pp. 60~65 참조.

4)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만과 요동반도의 할양을 중국에 요구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이 나서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3國干涉을 실시한다. 그 후 러시아는 1896년 청나라와 동맹밀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1898년 旅順과 大連의 장기간 租借를 실현시켰다. 이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북만주 통과를 비롯한 만주의 교통망을 독점함으로써 만주전역을 지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고, 1903년 하얼빈으로부터 旅順까지의 전노선을 개통하기에 이른다. 海軍本部,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대전 : 해군본부, 1997), p. 45.

5) 실제로 英·日同盟의 덕택으로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러시아 발틱함대의 동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계속 제공받아 쓰시마(對馬)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요격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奥宮正武, 『眞實の日本海軍史』(東京 : PHP 研究所, 1999), p. 85.

의 지역내 통상이익을 극대화하는 門戶開放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환영하였다.

1904년 4월 러·일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 후 미 육군참모총장 차피(Adna R. Chaffee) 장군은 육·해군합동회의(JANB : Joint Army and Navy Board)⁶⁾에 대해서 육·해군의 협동이 필요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그 후 일본도 그 대상의 하나로 포함된 일련의 전쟁계획(오렌지계획 : Plan Orange)⁷⁾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2. 잠재적(潛在敵)으로서 일본의 대두

그러다 1906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근대화의 후발주자였던 일본이 극동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군사적 재능을 맘껏 과시하고 일본의 국가경제도 전쟁의 주름살을 잘 버틸 수 있다는 점이 과시된 것이다. 이처럼 극동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힘과 영향력을 일본이 대체해 나가자, 1907년 미국 육·해군합동회의(JANB)는 러시아를 대신하여 일본이 극동에서 제국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을 따라 세력을 팽창하고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 및 기회균등 원칙을 위협하는 신흥 위협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미국에

6) 1903년 내각 이하의 수준에서 육·해군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는 요청받았을 때만 대통령과 내각에 자문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현재 미 합참의 前身격이다.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1, ※ 이제부터 *War Plan Orange*로 약칭함.), p. 13.

7) 예를 들어 흑색(black)은 독일, 황금색(gold)은 프랑스, 보라색(purple)은 러시아, 초록색(green)은 멕시코, 적색(red)은 영국 그리고 백색(white)은 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으로 각각 명칭이 부여되었다. *War Plan Orange*, p. 387. 최초의 대일 전쟁계획(plan orange)은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일본이 하와이를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고 1898년에 획득한 필리핀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平間洋一, “建艦計劃見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丸』(1995年 7月), p. 120 :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 327.

서는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한 오렌지계획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중국에서의 통상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중간기지로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던 일본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지도자들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커다란 지진과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일부 백인들이 당시 미국으로 대량 이민와 있던 일본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하고 테러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891년부터 1906년 사이에 수천명의 일본인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자 일본 兒童의 隔離教育法案이나 일본 이민의 土地保有禁止制度 등 인종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성립되고 백인 거주민들이 일본 이민의 유입을 차단시킬 목적으로 민심을 선동하고 폭동을 부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차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미·일간에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다.⁸⁾ 이로 인해 미 해군은 미국의 문호개방 및 자유무역 정책을 수호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보다 강력한 해군력을 배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미 해군대학(U.S. Naval War College)에서는 미·일간의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또 당시 미국은 마한(Alfred T. Mahan) 제독의 주문대로 함대를 兩分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함대주력을 대서양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주력함대가 태평양으로 회항하기 전에 하와이나 알류산 열도 그리고 심지어는 미 본토의 서해안까지 점령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파나마 運河를 건설하기로 추진하였다.⁹⁾

8) Sidney C. Moody, Jr., *War against Japan*(Novato, California : Presido Press, 1994), p. 16. 그러나 1908년 미 해군 함대가 東京을 친선 방문하면서 이민을 둘러싸고 불편해졌던 미·일 관계는 일단 평정을 되찾는다.

9) 미국은 1903년 500km에 달하는 파나마 지역을 租借하고 그 다음 해 運河 工事に 들어가 1914년에 운하를 완성시켰다. 파나마 운하는 총길이 약 40마일로서 남미까지 우회할 때 소요되는 항정을 6,000km나 단축시켰다.

1907년 6월 미국의 육·해군합동회의(JANB)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미 함대를 가능한 신속하게 극동으로 파견하고, 필리핀의 육·해군부대를 슈빅 灣의 해군부대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강하도록 건의하였다. 이 두 가지 건의사항은 그 후 발전하는 미국의 대일 군사전략의 기본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발전한다. 첫째, 태평양 정면에서의 전략우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에 커다란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그 경우 해군기지의 후보로서는 필리핀과 하와이가 거론될 수 있다. 둘째, 1898년 취득한 필리핀의 방위에는 커다란 희생과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1908년 1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태평양에서의 미 해군기지로서 하와이가 선정된다.¹⁰⁾ 먼저 하와이 제도만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전체에 대해서 방위 완충지대가 된다. 둘째, 태평양에 있어서 마치 부채의 중심(要)과 같이 미 해군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필리핀은 하와이에서 5,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적 지상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위의 완벽을 기할 수 없고 결국 진주만으로부터 西進하는 미 해군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일본 해군의 마닐라 灣 사용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느냐가 문제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 해군이 마셜(Marshalls), 캐롤라인(Carolines) 및 마리아나 諸島(Marianas) 등 赤道 이북 南洋群島를 점령하고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미 해군은 다시 한 번 급속히 증강되는 계기를 맞는다. 파나마 운하의 개통으로 미 대서양함대는 남미를 우회하지 않고도 약 6,000마일을 단축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서양에 있던 주력함대를 태평양으로 전개하는 데 111일 걸리던 것이 6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일본 해군의 南洋群島 점령은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이 발생할 시 필리핀과 괌이 개전 초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미국민 사이에 부각시켰다.

10)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 120.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일본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서태평양에 있어서 지배적인 국가로서 마셜(Marshalls), 캐롤라인(Carolines) 및 마리아나 諸島(Marianas) 등 赤道 이북의 南洋群島에 대한 위임통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보유하던 괌(Guam)과 필리핀은 일본의 지배영역 서측내에 고립되는 격이 되었다. 이들 영토는 일본 본토로부터는 1,500마일 정도, 당시 일본의 외곽도서였던 페스카도레 군도(Pescadore Islands)와 보닌 열도(The Bonins)로부터는 각각 570마일, 90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대신, 하와이로부터는 5,000마일이나 멀리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의식이 점점 더 커져 가면서 미·일 관계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의 힘과 영향력에 견줄 만한 국가도 없었으며 미 해군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일본해군 뿐이었다. 더구나 아시아·태평양 正面은 미국으로서는 뒷문(back door)과 같은 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태평양 방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계속 높아져 갔다. 그 결과 1919년 6월 미 태평양함대가 창설되었고 당시 최신예 함정이 다수 태평양에 전개되었다. 또 1922년 12월 미 해군은 대일 전쟁을 상정하여 전투함대(battle fleet), 함대기지군(fleet base force), 정찰함대(scouting fleet), 관제군(control force) 등 4개군으로 개편하고 당시 보유하던 전함 18척 중 최신예 12척과 대형 항모 2척으로 구성된 전투함대 및 함대기지군을 태평양 해안에 배치하였다.¹¹⁾

1919년 7월 미국 육·해군합동위원회(JANB : Joint Army and Navy Board)가 재건되고 그 예하에 합동기획위원회(JPC : Joint Planning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합동기획위원회(JPC)는 먼저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던 오렌지계획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개정하였다.¹²⁾

11)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 119.

12) 龜井浩太郎, “美國の對アジア・太平洋軍事戰略”, 『軍事研究』(1999年 1月), pp. 51~52.

첫째, 가상적국 : 일본

둘째, 극동의 미국 영토/이익에 대하여 일본이 공격해 올 경우, 해군에 의해 반격하고 적 함대의 격멸을 기도한다.

셋째, 육군은 오로지 방어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여 해군기지가 있는 마닐라 灣의 확보와 파나마 운하, 하와이, 알래스카, 미 본토 서해안의 방위를 담당한다. 미국의 전략상 서방경계는 하와이, 미드웨이, 괌을 지나 필리핀에 이르는 線이었으나 이 선은 취약한 곳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함대를 격멸하면 해상교통로가 마비되고 고립되어 패배할 것이다.

다섯째, 대규모 항공작전이 해상작전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더 결정적이 된다.

여섯째, 일본 열도 내부까지 침공할 필요는 없다.¹³⁾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戰時에 실행하는 것은 당시 미국의 육·해군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이 내용은 아직 희망적인 사항만을 열거한 격이었고 그 후 오렌지계획은 다시 몇 번에 걸쳐 개정되고 결국 1939년 6월 레인보우계획(Plan Rainbow)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대일 오렌지계획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극동의 신흥 주도세력으로서 일본의 대두,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일본 이민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¹⁴⁾ 등으로 미·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발전된 계획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동에 있어서 미국의 권익, 태평양에 있어서 현상유

13) 미국의 대일 전략수립 과정에서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 침공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주로 산악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도로와 교량이 너무 좁고 국민들이 용맹스럽게 대항할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 전선이 일본 본토로 가까워지면서 해군 주도로 종전될 것이 두려워 한·미 육군지휘부는 일본 본토 상륙을 고집하게 된다.

14) War Plan Orange, pp. 21~22.

지, 특히 중국의 영토보전 및 문호개방 정책과 미국·스페인전쟁에 의해 새로 취득한 극동의 영토, 즉 필리핀 및 괌의 방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오렌지계획들에 대해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미 해군을 중심으로 한 軍部 일각에서만 어떤 우발사태가 발생할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좀더 상세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概念的 基盤 정도로 취급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1930년대 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樞軸國)들의 침략야욕이 유럽,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서태평양까지 노골화되자 당시 아직까지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던 미국은 위협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책상서랍 속에 방치되어 온 낡은 계획들(오렌지, 레드, 레드·오렌지... 등)로서는 이들 추축국들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1938년 미 육·해군통합위원회(JANB)는 통합계획위원회(JPC)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다음 해 6월 통합계획위원회(JPC)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적 군사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개의 레인보우계획(Plan Rainbow)을 준비하였다.¹⁵⁾

레인보우 작전계획 1·3·4	유력한 동맹국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 단독으로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를 상정한 대처 계획
레인보우 작전계획 2·5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여 계획된 대처 계획

레인보우계획이 오렌지계획과 근본적으로 틀린 점은 종전의 순수히 수세적인 계획에서 적의 공격을 받기 전에도 작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다. 특

15) 龜井浩太郎, “美國の對アジア·太平洋軍事戰略”, p. 52.

히,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전략이라 할 수 있는 레인보우 5계획(Plan Rainbow Five)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의 협동작전을 예상하고 서반구의 방위임무를 담당하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패배를 결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혹은 유럽으로 미군의 파견을 검토한다는 것이 그 뜻이었다.

특히, 태평양에서의 실질적인 대일 전쟁지침으로서 레인보우 5계획은 미국의 태평양전략이 영국과 프랑스와의 협력을 상정한 세계전략 중 하나의 국면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미국 전략구상의 체계적인 전환을 의미하였다. 즉, 오랫동안 미국 군사사상에 있어서 대립되어 왔던 두 가지 쟁점을 일단락 짓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까지 미 해군은 태평양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에 커다란 관심을 경주해 왔는데 비해, 또 한편으로는 미 해군이 평시에 태평양과 대서양에 각각 함대를 배치하나 유사시에는 양쪽으로 분할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즉 ‘艦隊分割不可論’이 아직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대립하던 의견은 1940년 독일이 서유럽을 석권할 때 먼저 독일을 격파하고 그 이후 미 해군에 의해 영국·프랑스 함대와 대서양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영역을 독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설정되면서 독일을 격파할 때까지 태평양과 극동에서는 수세에 입각하기로 결정됨으로써 일단락된 것이다.¹⁶⁾ 다시 말해, 대일·태평양 전략인 오렌지계획(Plan Orange)은 유럽·대서양 전략인 레드계획(Plan Red)에 종속되는 것으로 자

16) 레인보우계획은 1941년 미·영 참모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전되어 ABC-1이라는 명칭의 공동보고서로 구체화되었다. 비록 이 보고서는 양국 정부 수준의 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양국 육·해군 지도부는 이를 기준으로 主力을 유럽 및 대서양에 투입하고 시기를 보아 독일을 격파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 공세작전을 예측하였으며 이 때문에 태평양 방면은 수세가 불가피하고 필리핀, 괌, 웨이크(Wake) 諸島의 상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측하였다.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p. 327~328.

리매김된 것이다. 이 유럽 優先主義는 지정학적·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미국 대외정책상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 후에도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전략의 한 基調로서 계속 견지된다.

Ⅲ. 美國의 對日 전쟁 구상

1. 오렌지계획(Plan Orange)

그러면 여기서 미국의 대일 전쟁계획, 즉 오렌지계획(Plan Orange)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대일 오렌지계획은 다음과 같은 전제사항을 바탕으로 하였다.¹⁷⁾

첫째,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며 이 전쟁에서 양국은 연합국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이 전쟁의 원인은 일본이 극동지역의 육지, 인구, 자원을 지배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기도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스스로 동양에서 서양의 영향력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民族自決과 개방주의적 국제통상 원칙을 표방한다.

둘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리핀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제거함으로써 일본 주변해역에서 미국의 힘을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전쟁을 위해 모든 전쟁 잠재력을 동원하는 일본은 준비가 되면 奇襲을 시도하여 서태평양을 쉽게 장악하나 미국의 서해안까지 진출하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

17) 오렌지계획의 최초 입안자는 1907~1911년간 미 해군대학에서 교관을 역임한 James H. Oliver 중령으로 전해진다. 오렌지계획에 관하여는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및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p. 120~121 참고.

일본은 미국민이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먼 극동지역에서 장기간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에 염증을 느껴 일본이 전쟁 초기에 거둔 이익을 수용하며 평화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신념하에 전쟁을 가능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임이 판명된다. 즉, 미국민은 평화를 존중하나 일단 공격을 당하면, 특히 하와이가 기습을 당하면 분노 속에 쫓기할 것이다. 그들은 옳다고 여기는 명분을 위해서는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도 오랫동안 인내할 것이다. 미국의 산업력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서태평양을 통제하며 일본의 군사능력과 경제생활을 파괴하여 결국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기 위해 활기찬 반격을 수행하도록 강화될 것이다.

즉, 오렌지계획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 및 하와이에서 서태평양까지의 거리(distance)¹⁸⁾와 우세한 해·공군력이라는 힘(power)의 방정식이었다.¹⁹⁾ 여기에 추가되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섬나라 일본의 고립적인 지리적 특성, 즉 해상교역에 의존한다는 戰略的 脆弱点이었다.

결국 거리(distance)와 힘(power) 그리고 일본의 지리(geography)라는 요소가 對日 오렌지계획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전투양상을 상정하게 만든다. 첫째 단계에서 일본은 허술하게 방어된 미국의 극동기지들을 탈취하여 말레이 및 네덜란드령 東인도 제도 등 남방 및 서방지역의 유전과 천연자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필리핀에 있는 미군 요새들은 일본의 전진을 지연시

18) 平間洋一, 전계서, p. 120.

19) 이러한 거리와 힘의 방정식이 1922년 워싱턴 조약을 이끌어 낸 주된 배경이었다. 즉, 당시 주요 해군국간의 해군력 감축 및 극동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및 중국이 참석한 워싱턴 조약에서는 일련의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이 중 하나로서 주요 해군국들은 향후 10년간 주요 수상전투함을 건조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주요 전투함 비율을 5:5:3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개전 전 일본의 해외의존도²⁰⁾

품 목	국산(천톤)	수입(천톤)	수출(천톤)	해외의존도(%)
주 철	568	3,773	-	87
강 철	5,266	672	529	3
구리(銅)	75	71	15	43
흑 연	9	97	-	92
아 연	20	57	-	74
주 석	2	5	-	71
망 간	36	80	3	68
알루미늄	9	12	1	55
니 켈	-	3	-	100
귀 금 속	1	2	-	67
유 황	92	-	59	0
석 탄	39,782	4,127	1,066	7
석 유	308	3,801	45	92
목 화	-	843	24	100
양 모	-	108	-	100
펠 프	786	277	-	26
고 무	-	63	1	100

키는 희생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함대는 일본의 주력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모면하여 중앙 태평양 근해로 행동을 제한하되 적의 취약기지를 타격하면서 전투 기회를 노린다. 한편, 미 해군 주력은 비록

20) 1935~1938년 평균치, 일부는 추정.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 565 인용.

일본의 기습을 예방하지는 못하나 비교적 안전한 동태평양쪽에 있는 미국내 모항에 집중하여 점진적으로 전력을 재정비하고 집중 동원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 일본의 商船隊는 전세계 해양에서 미 해군에게 감시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

둘째 단계는 우세한 해군과 항공력으로 구성된 미 원정군이 서쪽으로 필리핀을 향해 반격한다. 소규모이지만 격렬한 전투를 통해 중앙 태평양에 있는 일본의 점령도서를 미국이 탈취함으로써 전방 해·공군기지가 구축되고 兵站線이 확보된다. 이어 우세한 미국의 해·공군력에 의해 지원받는 상륙작전이 일본에 의해 탈취된 도서들에 대해 연쇄적으로 실시된다. 일본은 뒤에서 설명하는 邀擊漸滅作戰構想에 따라 시간과 거리를 이용하여 미 해군 함대의 소모를 강요하면서 저항하나 결국 미 해군은 이 소모전에서 승리한다. 약 2~3년간의 소모전 끝에 미국은 필리핀 기지를 탈환한다. 그후 미 해군에 의한 점진적인 봉쇄로 인해 일본의 해상교통로는 차단되면서 통상파괴전이 서태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결국 일본이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일 두 함대는 決戰에 임하고 여기서 미 해군이 승리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일본의 고립된 지리적 특성은 치명적임이 판명된다. 일본에 대한 經濟戰(economic warfare)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서기지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군은 아시아 대륙 연안에 나란히 일본의 외곽도서들을 따라 북진한다. 일본이 평화협상을 요청해 올 때까지 미군은 일본의 주요 항만을 봉쇄하고 일본의 산업중심지와 도시들을 공중폭격하면서 유린한다. 봉쇄와 공중폭격으로 인해 조만간에 일본은 항복하게 된다. 유럽전선에서의 독일 육군과는 달리 일본 육군은 중국 대륙과 본토에 상당 규모로 건재했지만 미국의 우세한 해·공군력이 일본 해군과 경제생활을 파괴함으로써 일본은 파멸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섬나라 일본의 전략적 취약점을 염두에 두고 해·공군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서태평양에 대한 制海權(command of the sea)을 달성함으로써 전쟁 초기

에 일본에게 빼앗긴 필리핀, 괌 등의 영토를 회복하고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제압하여 자원이 일본내로 유입하는 것을 근절하는 동시에, 공습에 의해 일본의 산업기반을 파괴하며 해상봉쇄를 실시하여 연안항로도 차단하고 일본 함대를 파괴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 기반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 오렌지계획의 요지였다고 할 수 있다.

2. 우세한 해군력(항공력) 위주의 전력 건설

이같은 오렌지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먼저 태평양이라는 자연적 장애물을 횡단하여 일본 해군보다 우세한 해군력을 전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금세기 들어 항상 그러했듯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방호해 준 것은 太平洋이라는 물리적 장벽과 海軍力 및 이와 관련된 航空力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은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해역에 존재하는 도서지역에 대해 해군력을 주로 하는 해양작전이고 우세한 항공력(항모)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특성상 해군전략이며 하와이에서 아시아 연안까지 약 5,000마일이나 되는 태평양을 넘어 우세한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태평양이라는 자연적 장애물을 횡단하는 데 필요한 기지망의 정비를 위해 미국은 1867년 미드웨이(Midway), 1898년 웨이크(Wake), 1899년 사모아(Samoa) 제도의 투투일라(Tutuila)를 영유하게 되었으며, 1903년부터 미드웨이를 海軍省의 관할하에 두고, 1908년에는 하와이에 해군기지를, 필리핀에는 전진기지의 건설을 결정하였다. 그 후 미·일간에 대립이 심화되던 1936년에는 남서태평양 미이크로네시아 근처의 베이커(Baker), 캔턴(Canton) 등 몇 개의 도서를 영유하였다.

그러나 이들 도서의 서쪽에는 일본이 지배하는 마셜(Marshalls), 캐롤라인

(Carolines) 및 마리아나(Marianas) 諸島 등 南洋群島가 미 함대의 진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갈리폴리 상륙작전에서 실패했던 교훈은 방어되고 있는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미 해군 지도부에 심어주는 남양제도를 점령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인식되었다. 그 대책으로 南洋群島를 국제연맹 관리하에 C급 위임통치령으로서 본 지역내에 육·해군 근거 또는 築城 등 군비를 제한하여 점령시 예상되는 손실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미국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南洋群島의 非軍事化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²¹⁾

또한 미국은 태평양이라는 장애물을 횡단하여 미 함대가 일본 해군에 맞서 우세한 전력으로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기지들을 축차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強襲上陸作戰 가능한 부대로서 遠征海兵隊와 상륙수송 전력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송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하였고 극동에서 일본보다 우세한 해군 및 항공전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군보다 5~10배 정도의 군수물자가 수송되어야 했으므로 군수지원 전력의 대대적인 증강을 추진하였다.²²⁾

흥미롭게도 대일 전쟁계획 의거 미 함대가 태평양을 건너 일본 함대를 공격차 西進할 때 당시 유효하던 英·日同盟 의거 배후에서 영국 해군이 공격할 가능성을 미 해군 지도부는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1920년 10월에는 영국과 일본이 공격해 왔을 때의 전쟁계획으로서 ‘對英·日 전쟁계획(Plan Red-Orange)’도 미국에서 작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물론 英·日 同盟을 해체시키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는 1922년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21)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 120.

22)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 122.

일본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로 4개국(미·영·프·일) 조약을 제안함으로써 1902년부터 지속되어온 英·日同盟을 소멸케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²³⁾

한편, 미 해군이 대일 함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우세한 전력을 서태평양에 전개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즉,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태평양 횡단작전에는 군수지원부대를 호위하는 전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함과 순양전함, 즉 주력함의 對日 보유비율을 5 대 3으로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²⁴⁾

〈표 2〉 워싱턴 조약의 결과²⁵⁾

최대 보유량	미국·영국	일본	비율
전함	525,000톤	315,000톤	5 : 3
항모	135,000톤	81,000톤	5 : 3

더 나아가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이 워싱턴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보조함정(순양함 및 대형 구축함)을 정비하기 시작하자 1930년 런던 조약에서 補助艦艇도 軍縮 대상으로서 포함시키면서 미 함대의 우세를 더욱 확고하게 도모하였다. 이 결과 미 함대는 싸우지도 않고 일본 해군 전력의 2할을 태평양에 水葬시킨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해군 군축조약은 일본 해

23) 英·日同盟이 해체되도록 촉진시킨 또 다른 요인들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일본보다 미국을 더욱 중시했다는 점, 러시아 정부가 붕괴되어 극동에서 러시아 위협이 적어진 점, 독일의 영향력이 극동에서 일소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奥宮正武, 『眞實の日本海軍史』, p. 121.

24) 이에 비해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의 목표는 주력함, 즉 거포를 갖는 전함, 순양전함의 보유량에서 대미·영 7할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만일 대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미 7할의 전력을 보유한다면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奥宮正武, 『眞實の日本海軍史』, p. 122.

25)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 123.

군에게 심각한 위기의식 및 對美 적대감을 일으키며 일본 해군의 모든 노력을 對美戰으로 지향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워싱턴 및 런던 조약의 결과로 미 해군은 일본 해군보다 5 대 3의 전력우세를 유지하도록 허용되었으나 미 해군은 조약에서 허용한 최대한도의 함정은 건조하지 않았다. 그러다 1934년 상하이(上海)事變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공 야욕이 노골화되자 미국에서는 빈슨-트랩멜 법안(Vinson-Trammell Act)²⁶⁾이 성립하여 워싱턴 및 런던 조약에서 허용된 최대한도의 함정 및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에 착수하였다.

〈표 3〉 런던 조약의 결과²⁷⁾

구 분	미국·영국	일 본
순 양 함 (8인치 포 이하 탑재)	146,800톤	108,400톤
순 양 함 (6인치 포 이하 탑재)	192,200톤	100,450톤
구 축 함	150,000톤	105,500톤
잠 수 함	52,700톤	52,700톤

그후 1936년 1월 일본이 런던 군축회의에서 탈퇴하고 同 年末 워싱턴 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中·日 사태는 더욱 확대되고 유럽에서도 戰雲이 확대되자 미국은 대서양 및 태평양에서의 독일 및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1938년 5월 제2차 빈슨-트랩멜 법안을 수립하여 주력함 24척, 항모 8척, 순

26) 1934년 3월에 성립된 미 해군력 증강계획으로 5년간에 軍縮條約에서 결정된 허용한도의 함정, 즉 보조함정 102척을 건조하고, 항공기 1,000대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법안.

27)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p. 120.

양함 48척 등 총 190만 톤의 함정과 항공기 약 3,000대를 정비하는 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1940년에는 함정 22척 총 167,000톤의 건조와 항공기 1,500대를 1942년까지 정비한다는 제3차 빈슨-트럼멜 법안을 그리고 동년 7월에는 함정 257척 총 132만톤, 항공기 15,000대를 1946년까지 정비한다는 이른바 스타크 계획(Plan Stark)이라 불리는 兩洋艦隊法案(Two-Ocean Navy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 이들 함정의 대부분은 건조중에 있었고 개전시 미·일 해군간의 전력비는 <표 4>와 같다.

<표 4> 태평양전쟁중 미·일 함정전력 비교²⁸⁾

구 분	개전시 보유척수		전쟁중 건조척수		총 계(척)	
	미 국	일 본	미 국	일 본	미 국	일 본
정 규 항 모	7	6	18	5	25	11
특 설 항 모	1	4	86	10	87	14
전 함	17	10	8	2	25	12
중 순 양 함	18	18	15	0	33	18
경 순 양 함	19	20	33	5	52	25
구 축 함	175	112	352	55	527	167
잠 수 함	111	65	203	126	314	191

결국 미국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해전에서 우세한 해군력(sea power)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자랑하던 지상전투력(land power)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대일 오렌지 계획의 가장 기본적 전략구상(grand strategy)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구상은 이후 태평양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미국의 국가정책으로서 계속 견지된다.

28)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丸』(1995年 6月), p. 125.

한편, 오렌지계획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국가의 모든 산업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으로 나오는 반면에, 미국은 대서양 및 태평양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원을 점진적으로 동원하여 일본의 도전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당시 일본은 인구면에서 미국의 1/2, 산업능력면에서 미국의 1/10에 불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중 미국의 동원대세가 완성되면서 미·일간의 전력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Ⅳ. 日本의 對美 전쟁 구상

1. 邀擊決戰 思想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은 1907년 4월 ‘帝國國防方針’²⁹⁾을 최초 제정하여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최초로 미국을 假想敵國의 하나로 상정하였다.³⁰⁾ 당시 일본 제국해군은 공격차 서태평양으로 진입해 오는 미 해군 주력함대를 요격한 후 戰艦 위주의 함대결전에 의해 격멸시킴으로써 전세를 일거에 결정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일본 해군의 기본전략인 邀擊決戰 思想³¹⁾이다.

29) 해군본부,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 p. 63.

30) 1867년 시작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해군의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범하였는데, 1869년 해·육군을 총괄하는 兵部省을 설치하면서 해군은 영국, 육군은 프랑스를 모델로 하여 근대화된 군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해군은 제1의 가상적국을 러시아로 삼았으나 淸·日 대립이 격화되던 1882년부터 제1의 가상적국을 청나라로 전환하였다가 청·일전쟁 종결 후에는 3國干涉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의식이 증폭되어 다시 러시아로 전환시키면서 러·일전쟁으로 이어졌다. 해군본부,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 pp. 9~63 참조.

31) 邀擊決戰 思想에 대해서는 태평양전쟁중 일본 해군 제일 항공함대참모였다가 종전 후 1959년 항공자위대 막료장을 역임한 源田實의 『眞珠灣作戰 回顧錄』(東京 : 讀賣新聞社, 1972), pp. 24~84에서 잘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본 제국해군의 최소 소요전력 규모로서 20,000톤급 전함 8척, 18,000톤급 장갑순양함(나중에 巡洋戰艦이 됨) 8척으로 구성된 八八艦隊³²⁾의 정비에 일본은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八八艦隊의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단시일내 완성될 수가 없었고, 일본 議會의 반대로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1916년 일어난 유틀란드 해전(Battle of Jutland)³³⁾에서 독일의 순양전함이 보여준 포격 효과는 세계 각국 해군을 일제히 소위 大艦巨砲主義³⁴⁾로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일본도 순양전함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그동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八八艦隊 건설계획을 다시 추진하여, 1916년 八四艦隊(전함 8척, 순양전함 4척), 1917년 八六艦隊(전함 8척,

32)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p. 116~117. 이것이 소위 88함대의 기원으로서 최초에는 전함 8척, 순양함 8척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88함대는 구축함 8척과 對潛헬기 8대로 구성된 護衛隊群을 지칭한다. 일본은 기동부대의 주력으로서 4개의 護衛隊群(88함대)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33) 1916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덴마크의 유틀란드 반도 근해에서 벌어진 영국 대함대(Grand Fleet)와 독일 대양함대(High Seas Fleet)간의 해전. 이 해전에서 영국 대함대가 함정 척수 및 화력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으며 독일 대양함대는 우수한 광학장치를 이용하여 정밀사격 효과를 보면서 영국 대함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부여하였다. 한편, 영국 대함대 사령관이던 젤리코 제독은 영국의 艦隊戰力 保存과 독일 함대 격파라는 이중적인 부담 속에 전투시기를 지연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상실하는 틀을 범하였지만 독일 북해함대도 그 후 거의 자국 항만내에서만 대기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영국 해군에게 더 이상의 적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 해전의 결과는 영국의 전략적 승리로 간주된다. 海軍大學, 『世界海戰史』(대전: 해군대학, 1998), pp. 187~197. 이 해전에서 양측이 상대방에게 부여했던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砲擊에 의한 것으로서 이 해전은 그 후 전세계 해군에 보다 큰 화력을 얻기 위해 대형 전함이 선호되는 大艦巨砲主義를 더욱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奥宮正武, 『大艦巨砲主義の盛衰』(東京: 朝日ソノラマ, 1989), pp. 111~130.

34) 大艦巨砲主義란 보다 큰 艦艇에 보다 큰 대포를 보다 많이 탑재하려는 海軍思想을 의미한다.

순양전함 6척) 등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1920년에 八八艦隊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1927년 드디어 전함 8척, 순양전함 8척을 비롯 순양함 22척, 구축함 75척, 잠수함 80척 등으로 구성되는 八八艦隊를 완성시킬 예정이었다.³⁵⁾ 그러나 미국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함대의 건설을 개시하였고 또 1922년 워싱턴 회의(Washington Conference)에서 영국, 미국, 일본간의 주력함 및 항공모함의 보유 비율을 5:5:3으로 제한하자, 1923년 일본은 帝國國防方針을 개정하여 제1의 가상적국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주력함 9척, 항공모함 4척, 대형 순양함 12척, 중형 순양함 12척, 구축함 96척, 잠수함 65척, 보조항공모함 2척, 기뢰부설함 2척으로 전력 규모를 축소하고 만다.³⁶⁾

이같이 해군전력 규모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에 처한 일본은 전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전법 및 무기체계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즉, 어떻게 하면 6함의 전력으로 10함의 적 전력을 타파할 수 있을까? 가 일본 해군의 과제였다. 이처럼 미 해군에 비해 열세한 전력을 보유하도록 강요당한 일본 해군은 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잠수함부대의 증강 및 해군 항공전력의 전력화 등 새로운 전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는 한편, 수동적인 전략 및 작전술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1922년 이후 일본이 채택한 邀擊漸減 作戰構想이었다. 이는 종전의 邀擊決戰 사상에 추가하여 워싱턴 군축회의 결과 강요된 주력함에서의 열세를 미 함대의 점진적인 감소(漸減)를 통해 상쇄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서 決戰을 치르겠다는 구상이었다.

즉, 극동에 있는 미 함대를 개전벽두에 격파하고 필리핀과 괌을 공략한 후 태평양을 횡단하여 공격차 접근해 오는 미 함대를 잠수함, 항공기에 의해 축차적으로 격파해서 전력의 점차적인 감소를 강요한 후 미 함대가 마셜 군도 근해에

35)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17.

36)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17.

도착시, 기회를 보아 수상전투함에 의한 決戰을 벌여 미 함대를 擊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 邀擊漸滅作戰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되었다.³⁷⁾

1. 잠수함 함대를 美 艦隊의 소재지(하와이)에 파견하여 그 동정을 감시하고 미 함대가 출격할 경우에는 이것을 추적하여 동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습격하여 적 전력을 감쇄시킨다.
2. 기지항공부대를 南洋諸島(구일본 통치하의 남양군도, 즉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 군도)에 전개하고 적 함대가 그 세력권내에 진입하면 육상항공부대와 항공모함 탑재 항공부대가 협력하여 항공공격을 가함으로써 적 세력을 더 한층 감쇄시킨다.
3. 적 함대가 결전장에 도착하면 고속전함으로 호위된 水雷戰隊가 야간 어뢰공격을 감행하여 적 함대에 커다란 타격을 부여하고 야전에 이어서 黎明 후에는 전함부대를 중핵으로 하는 전병력을 집결하여 결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을 격멸한다.

2. 함대결전 위주의 전력 건설

邀擊決戰 構想의 첫 단계는 하와이 미 함대가 언제 진주만을 출항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제일 먼저 잠수함 전력을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일본이 견지하던 邀擊漸滅 작전구상에서 잠수함에게 부여된 임무는 개전 전에 하와이 방면으로 출격하여 미 함대를 감시·추적하며³⁸⁾ 적 주력

37)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17.

38) 실제로 진주만 기습 직전 일본 해군은 하와이 근해에 27척의 잠수함을 투입하여 미 함대의 행동을 감시하고 필요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는 당시 일본 해군 지휘부가 잠수함부대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들의 역할에 대해 너무 크게 기대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中川務, “畫餅に終わった日本海軍の美渡洋艦隊迎撃決戰陣形”, 『世界の艦船』(1996年 10月), p. 101.

부대가 출격한 후에는 南洋群島 방면 혹은 적이 공격차 접근해 오는 예상해역에 미리 대기하여 적 함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邀擊漸滅 작전구상 중 漸滅작전, 즉 침공차 서진해 오는 미 함대를 요격하여 세력을 점감시킴으로써 곧 이어 벌어질 함대결전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본 잠수함의 주 임무가 된 것이다.

특히, 워싱턴 군축조약 이후에는 잠수함은 대미 전력열세를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일본 해군 지휘부에게 인식되었다. 즉, 주력함의 주 무기인 대구경포는 對美 6할이라는 제한 때문에 잠수함의 어뢰가 그 보충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어뢰의 공격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당시 선진해군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한 후 면허생산 등을 통해 잠수함 건조기술을 단기간내 축적하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무제한 통상파괴전의 주역이었던 U-보트 7척을 전리품으로 획득, 이를 이용한 각종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잠수함 건조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고 어뢰 성능 및 각종 전술을 발전시키는 등 잠수함 전력의 대폭적인 증강에 착수하였다.³⁹⁾

이러한 연유에서 일본 해군은 1930년 개최되었던 런던 해군군축회의⁴⁰⁾에서 최소한 78,000톤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 일본은 미국과 똑같이 52,700톤의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이미 시작된 대폭적인 잠수함 증강계획의 건조 톤수를 삭감해야 했으며 톤수의 감소를 무기체계의 질적 우세 또는 색다른 전술의 개발 등 특이성 있는 전력 및 독창적인 전술을 통해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9) 일본 해군의 잠수함 발달과정은 海軍本部,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 pp. 84~96 참조.

40) 이 런던 회의는 1922년 워싱턴 군축협정에서 제외되어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던 보조함(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대한 군축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간에 개최된 것이었다. 이 회의는 워싱턴 회의와 더불어 신흥 일본의 대두를 봉쇄하려는 미국·영국의 의도로 해석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고조되고 결국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은 잠수함에 수상정찰기를 탑재하여 잠수함의 감시 및 탐색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잠수함 탑재 항공기 개발에 착수하여 1933년 세계 최초로 실전배치(伊號 第五潛水艦)하는 데 성공하였다.⁴¹⁾ 이는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해군도 시도했으나 결국 단념했던 구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은 효과적인 요격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수상정찰기를 6대나 탑재하고 對潛水艦用 통신능력을 강화시킨 잠수함 지휘용 순양함(大旋)도 완성시켰으며 산소어뢰⁴²⁾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하는 등 잠수함 및 관련된 무기 기술면에서 당시 전세계 해군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잘 훈련된 일본 잠수함부대도 당시 일본 해군이 견지하고 있던 전함 위주 및 함대결전 제일주의 사상으로 인해 결국 무익하게 소모되는 결과가 된다. 일본 해군 지휘부는 적 주력함대를 격멸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하여 잠수함 등 함대 보조세력은 주력함대결전시 적 함대에 비해 일본 해군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운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즉, 잠수함을 주력인 戰艦의 보조전력으로 간주하여 적의 항모기동부대나 상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경계가 삼엄하고 공간이 협소한 좁은 해역에 反擊沮止 전력으로 투입함으로써 다수 희생시켰다.

워싱턴 및 런던 군축조약의 조인에 의해 야기된 대미 해군력 열세를 보충하는 동시에 邀擊漸減 전략의 2단계 構想을 위해 일본 해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두

41) 여기에 관해서는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p. 118~119. 일본 해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800kg의 폭탄 또는 어뢰를 탑재하는 수상공격기 3대를 탑재하고 지구를 한바퀴 반이나 항속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대의 잠수함 伊 400형을 3척이나 건조했지만 제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敗戰을 맞고 말았다. 中川務, “軍艦史上の珍軍艦”, 『世界の艦船』(1999年 9月), p. 153.

42) 어뢰가 발사되면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장된 열기관이 구동되어 고열의 배기가 해중으로 방출된다. 이로 인해 어뢰의 항적이 생김으로써 적에게 발견되어 반격을 당하기 쉽게 된다. 이때 공기 대신에 純酸素를 저장하여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어뢰를 추진시키고 배기는 거의 대부분 해수에 용해되도록 만든 것이 산소어뢰이다.

번째 분야는 해군 항공전력의 정비였다. 특히, 기지항공전력은 당시 런던 군축 조약에서 합의된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일한 전력이었던 관계로 일본 해군은 九六式 陸上攻撃機, 一式 陸上攻撃機 등 기지항공기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일본 해군의 항공전력 증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37년에 발생한 상하이(上海)事變이었다. 즉, 중국과의 실전을 통해 일본 해군은 항공전력의 위력을 실감한 후, 미 함대 주력을 포착하고 해상에서 적 항공전력을 격멸하는 동시에 함대결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탑재할 각종 艦載機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 1937년에는 南洋群島 委任統治領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제한했던 워싱턴 조약이 파기됨으로써 南洋群島가 육상공격기의 전진기지로 대미 전략상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육상에 기지를 둔 폭격기와 전투기 등 육상 항공전력을 집중 정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태평양전쟁 개전 시점에는 항공모함 10척과 5개의 항모항공전대 등 세계 제1의 해군 항공전력을 보유하면서⁴³⁾ 결과적으로 眞珠灣 奇襲이라는 세계 최초의 전략적 해상 항공작전을 연출하게 된다. 항모 탑재 항공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의 진주만 기습의 기본구상은 이보다 약 1년 전 영국 지중해함대가 실시한 이탈리아 타란토(Taranto) 港에 대한 야간 기습

43) 이때 미 해군은 총 8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이 중 태평양 정면에는 3척이 전개된 상태였다.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20.

44) 1940년 11월 영국의 지중해함대가 항모 일러스트리우스(Illustrious)에 탑재된 어뢰 공격기(Sword Fish) 및 정찰기를 이용, 야간 기습하여 이탈리아 최남단 타란토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해군 주력에 대해 심각한 손상(전함 1척 격침, 2척 대파, 중순양함 1척 대파 등)을 입힌다. 그 결과 이탈리아 해군은 함대를 타란토 항에서 철수하여 이탈리아 서해안으로 이동함으로써 영국은 지중해에서의 해양통제를 달성했다. 이 기습작전은 항공기가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임과 항모가 다가오는 태평양전쟁에서 지배적인 수단이 될 것임을 보여 준 최초의 사례였다. 이로부터 1년 후에 실시되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 구상도 여기서 착안했다고 전해진다. Eric Grove, “A Century of Seapower”, *Jane’s Navy International*(November/December 1995), p. 66 ; 해군대학, 『世界海戰史』, pp. 243~245.

작전⁴⁴⁾에서 얻은 海戰 教訓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라 전해진다.⁴⁵⁾

마지막으로, 邀擊漸滅 작전의 최종단계인 艦隊決戰 前에 적에게 최대한의 전력손실을 강요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은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水雷戰隊에 의한 야습을 특히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정거리 40,000m나 되는 酸素魚雷가 개발되었고 적 함대의 함포 사정거리 밖에서 우군의 함포로 적을 공격하는 '아웃 레인지(out range)' 전법을 개발하여 여기에 필요한 大口徑 함포를 탑재한 전투함을 건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경 46cm의 주포 9문을 장착하여 세계 최강의 전함으로 알려진 야마토(大和 : 1941년 12월 준공)와 무사시(武藏 : 1942년 8월 준공)이다.⁴⁶⁾

야마토와 무사시는 일본 해군이 워싱턴 회의에서 강요당한 전함 보유량의 열세를 質, 즉 대포 및 어뢰로 보완하려는 의도로 건조하기로 계획되었다. 즉, 파나마 운하의 통항을 전제로 할 때 미국은 이같은 대형 전함(배수톤수 6만 4천 톤 이상)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갈파한 후, 이 두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46cm 함포를 탑재함으로써 40cm 포를 탑재하고 있는 미 전함들을 2,000미터나 아웃 레인지(out range : 즉, 자함의 포탄은 적함에 도달하지만 적함의 포탄은 자함에 도달하지 않도록 함)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야마토와 무사시의 건조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⁴⁷⁾

45) 岩澤雅榮, 『戰爭の理論, 日本防衛編 : 防衛白書を考える』, 東京 : 近代文藝社, 1996, pp. 10~11. 한편 하와이 기습공격 구상은 이미 1927년 일본 해군대학의 도상연습으로 학생장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航空主兵思想을 견지하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聯合艦隊司令官의 구상이었다고도 전해진다.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26 및 木坂順一郎, 『昭和の歴史, 第7巻, 太平洋戦争』(東京 : 小學館, 1989), p. 42

46) 당시 미국 최대 전함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는 구경 40cm 3연장 3문의 함포를 탑재하여 야마토와 무사시보다 화력 및 사거리면에서 뒤떨어졌다.

47) 여기에 대해서는 奥宮正武, 『大艦巨砲主義の盛衰』, pp. 203~207.

〈표 5〉 태평양전쟁중 미·일간의 해군 항공전력 추이⁴⁸⁾

구 분	戰時 생산된 군용기 대수		태평양 전선에서의 미·일 항공전력 비교(臺)	
	미 국	일 본	미 국	일 본
1942년	34,796	8,861	1,962	개전시 2,625
1943년	65,894	16,693	3,537	3,200
1944년	77,122	28,189	11,142	4,050
1945년	40,810	11,066	21,908	4,100

그러나 일본 해군 일각에서는 야마토와 무사시의 건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야마토 1척을 건조 및 운용하는 비용 및 병력으로 항공기 1,000대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침공해 오는 미 함대 항공전력을 격멸함으로써 서태평양 상공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결국 함대결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1941년 6월, 즉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前 일본 해군 항공본부장이었던 이노우에 시게요시(井上成美) 중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新軍備計劃’을 작성하여 오이카와(及川古志郎) 해군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전해진다.

항공기가 발달한 오늘날 주력함대간의 決戰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거액의 돈이 필요한 전함은 건조할 필요가 없다. 적 주력함이 어떤 것이든 항공전력이 있다면 능히 침몰시킬 수 있다. 육상 항공기지는 절대적인 不沈航空母艦이다. 따라서 해군 항공전력의 주력은 기지항공전력이 되어야 한다. 對美戰에 있어서 육상기지는 국방세력의 주력이고 태평양에 산재한 도서들은 하늘이 준 요

48)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25 재인용.

새이다. 對美戰은 반드시 이러한 기지쟁탈전이 주가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상륙작전과 병행하여 상륙대항방어전이 주 작전이 된다. 따라서 만사를 제껴 두고라도 기지의 요새화를 급속히 실시해야 하며, 기지의 항공전력을 정비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함, 순양함은 희생해도 좋다. 일본이 생존하고 동시에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海上交通路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해상 호위전력을 두번째로 충실하게 해야 한다. 잠수함은 기지방어에도, 通商保護에도 또 공격에도 사용되는 艦種으로서 세번째로 고려하여 충실해야 한다.⁴⁹⁾

이는 大艦巨砲主義를 비판하고 해군의 空軍化를 주장한 航空主兵 戰艦無用論으로서 개전 후 실제로 전개된 태평양전쟁 국면의 추이를 예견한 뛰어난 판단이었으나 일본 해군 軍令部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일본 해군을 주도하던 大艦巨砲主義者들이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군 항공전력의 정비를 가로막은 것이다.⁵⁰⁾

邀擊漸滅 작전구상은 이는 국가 잠재력이 열세하고 워싱턴 및 런던 조약에 의해 전력의 열세를 강요당한 일본 해군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전략구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大韓海峽에서 요격, 격멸시킨 역사적 교훈을 對美戰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일본 해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우세한 전력을 갖고 있는 미 함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였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은 모든 점에서 공격, 특히 기습과 선제공격을 중시하고 여기에 부합된 무기체계 및 전술을 개발하려고 노력

49) 海軍本部,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 pp. 107~108;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戰史の教訓』(東京 : 原書房, 1978), p. 22 ; 奥宮正武, 『眞實の日本海軍史』, pp. 256~257.

50) 海軍本部,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 p. 84.

한 것이다.⁵¹⁾ 그러다 보니 해상교통로의 보호 등 방어적인 측면은 경시되는 경향이 일본 해군에 존재하였다.

이 遼擊漸滅 작전구상은 태평양전쟁 개전 직전까지 일본 해군의 對美 전쟁의 기본전략으로 견지되었다. 예를 들어, 태평양전쟁 개전시 일본 해군의 전략이라 볼 수 있는 “帝國海軍作戰計劃の大要”는 作戰方針의 大綱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⁵²⁾

중국 연안 및 양자강 수역의 제압을 속행하는 한편, 조속히 동양에 주둔하고 있는 적 함대 및 항공전력을 격멸하고 남방요역을 점령 확보하며 지구전 不敗 태세를 확립하고 그동안에 적 함대가 공격하러 오면 이를 遼擊擊滅함으로써 분명하게 적의 戰意를 격파한다.

이는 일본 해군이 30여 년간 미 해군을 主敵으로 상정하여 무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갈고 닦아 온 遼擊漸滅 艦隊決戰 戰略이었다.

3. 眞珠灣 奇襲 구상의 탄생

그러나 막상 태평양전쟁 개전시 일본 해군은 이같은 수동적인 측면의 遼擊漸滅 決戰戰略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색다른 전략을 연출해 내는데, 그것은

51)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하면서 패색이 짙어가던 당시 일본 해군은 미 해군에 비해 급격하게 벌어지는 전력 열세를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무기의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함수에 폭약이 장착된 舷外機를 부착한 고속 수상특공정 ‘震洋’ 약 6,000척, 수중 특공병기로서 ‘人間魚雷’라 불리는 ‘回天’ 420척, 어뢰 2개 또는 함수에 폭약이 장착된 有翼 小型潛航艇 ‘海龍’ 약 200척, 적 함정 艦底에 폭약을 고착시키는 소형 잠항정 ‘震龍’ 등 특공대 무기가 바로 그것이다.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25.

52)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 335.

다름 아닌 眞珠灣 奇襲이었다. 어떤 연유로 일본 해군은 태평양전쟁 개전시 전통적이며 수동적인 邀擊漸減 決戰戰略 대신 진주만 기습이라는 돌발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선택했던 것일까? 일본의 전쟁 지도방침 및 전략에 심각한 혼선을 분명히 야기했을 이 진주만 기습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진주만 기습은 누구보다도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聯合艦隊司令官이 개전 직전에 제안한 구상으로서 軍令部の 반대를 극복하고 강행시킨 전략이었다. 대미·영 전쟁이 결정된 이상, 短期速決戰에 의한 방법 외에는 勝算이 없다고 판단한 야마모토 연합함대사령관은 다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진주만 기습을 주장하였다.⁵³⁾

- (1) 미 함대가 하와이에 진출하여 대일 전쟁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두고 장대한 作戰線을 갖는 南方 占領作戰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언제 측면이 돌파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방작전이 절대적이라면 진주만 공격은 절대 불가결하다. 그뿐 아니라 개전 후에 피아의 전력차가 급속하게 벌어질 것을 감안할 때, 조기에 공격기회를 놓치고 나면 기회는 다시 또 찾아 오지 않는다.
- (2) 이 작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염려되는 기상의 장애도 극복 가능하다.

그는 전반적인 전쟁의 향방을 유리하게 하고 육·해군 협동하에 동남아시아 지대를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도 하와이 방면에 있는 미 해군 주력함대에 대해 기습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믿었던 것이다.⁵⁴⁾ 이에 대해 軍令部는 다음과 같은 반대 이유를 주장하였다.⁵⁵⁾

53)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 337.

54) 奥宮正武, 『大艦巨砲主義の盛衰』, p. 224.

55)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 337.

- (1) 진주만 공격은 어떠한 모험을 무릅쓰고도 결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
- (2) 적 함대가 일거에 일본 남방작전의 측면 및 배후를 찌를 수는 없다. 필시 먼저 마셜 군도의 일각을 점령하여 징검다리를 건너오듯이 접근해 올 것이다. 그곳에서 艦隊決戰의 기회도, 더 나아가 勝機도 붙잡을 수 있다.
- (3) 불충분한 항공전력을 남방과 하와이 양방면으로 분할하는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작전 차질의 경우에는 그 영향은 심각하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작전 차질의 위험성이 크다.
 - 대양에서의 연료보급의 곤란
 - 기밀유지의 곤란
 - 逆으로 선제공격을 받을 우려
 - 미·일 교섭에 누를 끼칠 우려

나가노(永野修身) 軍令部總長은 야마모토(山本) 연합함대사령관의 제안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다른 그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마모토 사령관이 그 만큼 자신이 있다면 그의 구상을 한 번 실행해 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처럼 군령부가 진주만 기습 구상에 처음 반대한 것은 遼擊決戰의 기회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니고, 진주만 기습 구상이 무엇보다도 성공하기까지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아무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진주만 기습은 남방작전 측면 및 배후의 엄호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여 장대한 남방작전을 아무런 우려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당초 계획되었던 遼擊決戰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大戰果를 거둬으로써 전략적으로도 세계 해전사에 남을 커다란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주만 기습은 오히려 미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대일 전쟁을 위해 총궐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일본에게 상당한 역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 전략적 실착이었다. 또 이는 육·해군 공히 전과에 도취한 나머지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케 만든 가장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 해군은 진주만에서의 대전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전반적인 전쟁경과에 전적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태평양전쟁을 실제로 준비하면서 일본의 전쟁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력은 미국의 무궁무진한 산업 잠재력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假定 아래 對美 전쟁 기본전략으로서 持久戰보다는 速戰速決을 그리고 全面戰보다는 制限戰(Limited War) 구상을 전지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⁶⁾

즉, 미국이 유럽에서의 전쟁에 신경을 집중하여 태평양에서 미처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하와이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습을 통해 미 해군 함대를 격멸하여 初戰에 신속한 승리를 달성한다. 하와이 기습작전이 성공하면 미 해군이 전력을 재건하는 데 걸리는 약 2년 동안 일본 해군은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태평양에서 남방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전쟁 지도부는 판단하였던 것이다.⁵⁷⁾

56) 예를 들어, 1941년 9월 6일의 御前會議에서 나가노(永野修身) 軍令總部長(舊 일본군의 전략을 담당했던 곳은 大本營陸海軍部였는데, 이 중 육군은 參謀本部가, 해군은 軍令部가 여기에 해당됨)은 對美戰에 있어서 피아의 국력, 병력 및 전략태세를 감안할 때, 일본이 미국을 굴복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전쟁은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일본이 50% 이상의 승산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 필요한 미 해군 對比 7割의 전력을 갖는 것은 미·일 양국의 建艦能力을 고려할 때 2년이 한계이며 따라서 당초 2년간에 어떻게 성과를 거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며 그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연합함대사령관도 미·일의 航空能力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일본의 10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의 속전능력은 대체로 1년 반 정도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東京: 原書房, 1979), pp. 316~317.

57) 실제로 1941년 11월, 한 御前會議에서 당시 나가노(永野修身) 軍令部總長이 “미 함대를 10이라 하면 일본은 7.5이다. 미 함대의 4함은 대서양에, 6함은 태평양에 있다. 영국은 그리 큰 해군력이 태평양 전선으로 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전함 1척, 순양함 10여 척, 항모 약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하와이 기습에 성공하면 2년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해진다. 木坂順一郎, 『昭和の歴史, 第7卷 太平洋戰爭』, p. 42.

〈표 6〉 미·일간 주요 물자 生産高 比較⁵⁸⁾

물 자 명	1938년	1941년	1944년
석 탄	7.2	9.3	13.8
석 유	485.9	527.9	956.3
철 광 석	37.5	74.0	26.5
주 철	7.3	11.9	15.9
鋼 塊	4.5	12.1	13.8
구 리	5.3	10.7	11.3
아 연	7.5	11.7	9.5
흑 연	31.3	27.4	11.6
알 루 미 늬	8.7	5.6	6.3
수 은	24.8
燐 鑛 石	45.2
계 (산술평균치)	60.5	76.7	118.3

* 일본의 생산고를 1로 할 때 미국의 생산고 배율

또 진주만 기습이 성공하면 일본은 서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외부와 고립시켜 압박을 가중하며 영국과 동아시아 지역내 大英帝國의 식민지 및 미국과 남서태평양 국가간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중국 북부에 있는 지상병력을 극동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 후 일본은 자급자족(self-sufficiency) 및 경제적 불가침성(economic invincibility)이 구비된 하나의 '남방제국(a southern empire)'을 건설하여 전략적 기반을 공고화함으로써 속전능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의 남방전략을 교란할 능력과 戰意를 상실하고 결국 일본의 制限戰 요구에 굴복할 것이며, 일본은

58) 木坂順一郎, 『昭和の歴史, 第7卷 太平洋戦争』, p. 40.

개전 초기에 획득한 전과를 기정 사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이 태평양전쟁을 구상할 때 실시했던 전략적 계산이었다.⁵⁹⁾ 즉, 일본의 전쟁목표는 기습을 통해 전쟁 초기에 거둔 전과를 협상된 평화조약이 실효화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버티는 것이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형태대로 전쟁을 수행했다라면 일본의 목적은 달성되었을 것이다. 독일이 항복하기 전까지 태평양 전선에서는 주로 일본을 봉쇄하기 위한 전쟁을 실시하겠다는 미국의 최초 전쟁계획, 즉 라인보우 5계획으로 인해 전쟁 초기에는 일본의 전략목표대로 전쟁이 진전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목표는 제한전이 아니라 무제한전(unlimited war)이었다. 즉,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는 일본의 완전한 패배(total defeat), 즉 완전한 승리(total victory)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⁶⁰⁾

또한 진주만 기습의 충격으로부터 미국은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하여 1942년 5월에는 珊瑚海 해전, 동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 8월 과달카날의 점령, 1943년 3월 비스마르크해 해전, 그 뒤를 이어 뉴기니아 작전 등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반격을 개시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무궁무진한 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 잠재력과 중국 등 극동에서의 통상이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해양국

59) 아키라 이리에는 그러한 일본의 전략적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첫째,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 初戰 패배 후 신속한 반격을 실시할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과소평가했으며, 둘째, 유럽에서 독일이 계속 영국의 국력을 소진시키거나 심지어 소련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독일의 국력을 과대평가하였으며, 셋째,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 영국, 중국 및 네덜란드 등 다수의 적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初戰勝利를 이어나갈 종합적인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Asia and the Pacific*(London : Longman, 1992), pp. 171~174.

60) Kent Roberts Greenfield, *American Strategy in World War I : A Reconsideration*(Florida :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63), pp. 10~11 ; *War Plan Orange*, p. 28. 아마도 이 완전한 승리에의 의지는 대영제국 해군 넬슨 제독의 정신을 기리는 데에서 기인한 것 같다.

가로서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전략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유럽에서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던 미국이 태평양에서는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고 자의적으로만 생각한 것이다.

V. 일본의 해양전략상의 오류

1. 자원 판단 오류

해양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최소한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태평양전쟁 중 범하였다. 첫째,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로서 에너지 자원, 회소금속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일단 태평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 경제는 갑자기 붕괴할 위험에 빠진다는 전략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즉, 천연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서 국가 경제활동이 지속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전쟁을 계속하고 국민의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원의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본토 자체의 방위작전만큼이나 중요시 되어야 하였다.

즉, 일본의 지형이 요구하는 전략적 필수요소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였고 이를 위한 작전이 일본의 대미 전략수행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 전략요건이 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세력이 열세한 일본 해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세한 미 함대와의 결전에서 어떻게 적을 격멸하느냐였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은 모든 점에서 공격, 특히 기습과 선제공격을 중시하고 여기에 부합된 무기체계 및 전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대신, 해상교통로의 보호 등 방어적인 측면은 체질적으로 이차적인 문제로 무시하거나 경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한 준비는 전쟁 前은 물론,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 해군에 의해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해군이 동남아시아 방향으로의 남진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전쟁자원의 확보였는데, 그 이면에 있는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해군이 艦隊決戰主義와 速戰速決이라는 편향된 사상으로부터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일본의 패전 직후 열린 제88차 일본 臨時議會에서 히가시쿠니(東久邇宮) 內閣은 전쟁패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船腹, 즉 수송선박의 喪失에 의한 海上輸送力の 激減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점은 전후 일본에 왔던 미국 戰略爆擊調査團의 보고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경제 및 육·해군력의 보급을 파괴한 여러 가지 요소 중 단일요소로서는 필시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⁶¹⁾ 즉, 일본 해군의 對潛水艦戰 경시가 미 해군과의 해전에서의 패배는 물론,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2. 잠수함작전 오류

일본 해군의 두번째 해양전략적 실착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일본 해군이 적 잠수함 공격에 대한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측면도 경시했지만 반대로 잠수함의 본연의 임무인 通商破壞戰에도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초 대서양에서 독일의 U-보트가 영국의 상선단을 무차별 공격했듯이 잠수함은 단독으로 은밀하게 작전하면서 적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여 해상통상을 파괴하고 적 수상함대에 막대한 對潛 준비태세를 강요하는 등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에게 實戰에서의 戰果 이상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더구나 함정이나 항공기의 量産 경쟁에서는 도저히 미국에 승리할 수 없던 일본으로서는 함대결전에 집착하기보다는 해상교통로의 공격에 나서야 할 형편이었다.

61)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 565.

그런데 일본 해군은 미국이 자국의 거대한 생산 잠재력을 이용하면 상선의 건조는 용이하며 또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 파괴작전으로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여겼던 것 같다. 또 미 해군의 주력부대인 항공모함과 전함을 격침시키면 대형 함정과 승조원을 단시간내 보충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일본 해군의 공격목표는 항공모함과 전함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 해군은 전략적 자산인 잠수함을 수상함대의 결전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잘못 운용하면서 잠수함 특유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무익하게 소모시킨 것이다.

만약, 일본 해군이 자국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던 장거리 전개능력을 이용하여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혹은 호주나 파나마 사이 등에서 통상파괴작전을 전개했다 라면, 미 해군은 분명히 상당한 규모의 對潛艦을 파견하여 선단호위나 대잠작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로 태평양에서의 도서 탈환 상륙작전의 진격속도도 다소 늦어지면서 일본 육군의 방위태세도 다소 개선되어 미 해군의 상륙작전은 더욱 큰 저항을 받고 많은 인명손상 속에 치러져야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前 일본 방위대 교수인 도야마 사부로(外山三郎)는 일본 해군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경시한 배경으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전을 불법·비인도적인 행위로서 항의했던 미국이 무제한 잠수함전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무제한 잠수함전은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여 오히려 일본의 패배를 자초한다는 우려

둘째, 잠수함의 가장 효과적인 운용은 해상교통로의 파괴보다는 함대 보조세력으로서 대함공격이며, 함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무제한 잠수함전은 결국 봉쇄될 수 있다는 편향된 艦隊決戰 第一主義 사상

셋째, 현대 총력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⁶²⁾

62)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戦史の教訓』, pp. 83~93.

이에 비해 미 해군은 개전 당시 일본 해군과 유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나 1942년 중반부터 大西洋 戰役에서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통상파괴전으로 인해 영국이 아주 고전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잠수함에 의한 통상파괴가 戰局 전반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船團擊破야말로 일본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력을 붕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같은 배경에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을 당한 다음날, 미 해군참모총장 (CNO : Chief of Naval Operations)은 섬나라 일본에 대해 無制限 潛水艦戰을 실시하도록 즉각 명령했다.⁶³⁾ 그 후 일본 선박은 전세계 해상에서 미 해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총 1,314척 530만톤의 함선이 미 잠수함에 의해 격침당함으로써 일본의 보급생명선은 절단되고 궁극적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는 것이다.⁶⁴⁾

더 나아가 일본 잠수함부대는 당시 일본 해군이 견지하고 있던 전함 위주 및 함대결전 제일주의 사상으로 인해 많은 경우 무익하게 소모되었다. 예를 들어,

63) 개전과 동시에 미국이 對日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언하였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미 잠수함들의 활약이 비교적 저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뢰의 구조적 결함, 태평양에 전개된 잠수함 척수 부족, 당시 전략중점이 아직 대서양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이었다고 전해진다.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戦史の教訓』, pp. 51~52.

64) 北林雄明, 『潛水艦は海戰をどう變えたか』, 『世界の艦船』(1999年 1月), p. 87. 한편 高橋辰雄은 실제로 개전시 일본이 보유한 선박은 약 646만톤이었고 전쟁중 신조한 선박이 약 337만톤, 여기에 추가해서 나포하거나 외국에서 고용하여 사용한 선박이 약 26만톤 등 합계 1,009만톤이었는데, 전쟁중 손상당한 선박톤수는 843만톤에 이른다. 그러나 남은 166만톤의 선박도 대부분이 보조선박 또는 전시 급조한 저질선박으로서 50만톤은 항해불능 상태에 있었고 항해 가능한 선박의 절반은 미 B-29가 투하한 감응기뢰로 인해 운항불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적고 있다. 高橋辰雄, 『護衛船團戰史 : 日本商船團武器なき戦い』(東京 : 圖書出版社, 1989), pp. 17~18 ;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戦史の教訓』, p. 45.

제공권이나 제해권이 상실되었을 때 고립된 도서에 대한 수송임무나 조난 항공기 조종사의 구조 임무 등 잡다한 용도로 잠수함을 투입하여 너무 혹사시킨 나머지 대부분의 전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 해군은 솔로몬 방면의 기지들에 대해 370톤의 식량 및 60톤의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을 투입하여 3척을 상실하기도 했으며 매달 1~3만톤의 상선을 격침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120~200톤의 식량 및 탄약 등을 총 313회나 운반시켜 총 26척의 잠수함을 상실하였다고 전해진다.⁶⁵⁾

이 밖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 잠수함은 전함의 보조전력으로 인식되어 주력전함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高速과 장대한 항속력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馬力이 큰 엔진이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에 비해 자연히 소음은 커지고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이 손상받아 적측에게 쉽게 탐지당하여 다수 침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⁶⁶⁾

여기에 추가해서 일본 해군은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도 어느 단일 艦種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수송용 잠수함, 수상기 탑재 잠수함 등 총 8種類, 15개 艦型에 이르는 많은 종류의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여 군수지원상의 어려움과 잠수함 건조시기의 지연 등을 자초하는 전략적인 틀을 범하였다.⁶⁷⁾

65) 平間洋一, 日本海軍の潜水艦戦を斬る, 『世界の艦船』(1999年 1月), pp. 91~92 ; 北林雄明, 潜水艦は海戦をどう變えたか, p. 88.

66) 태평양전쟁중 일본 해군은 잠수함 127척을 잃었고 이에 비해 미 해군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50척의 잠수함을 상실했다. 奥宮正武, 『大艦巨砲主義の盛衰』, pp. 326~329. 침몰된 일본 잠수함의 대부분은 미 해군의 레이더 및 소나(sonar : 음파탐지기)에 의해 탐지되어 결국 침몰 당하였다고 전해져 왔으나 나중에 밝혀진 미 해군 자료에 의하면 일본 해군의 암호가 해독되어 일본 잠수함 위치를 알아낸 후 미 해군은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 레이더로 적 잠수함을 발견 및 격침시켰다고 전해진다. 平間洋一, 日本海軍の潜水艦戦を斬る, p. 91.

67) 일본 해군은 15종류의 잠수함을 총 118척 건조했는데 비해 독일 해군은 동일형식으로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총 1,150척의 잠수함을 건조하였다고 전해진다. 平間洋一, “建艦計劃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p. 119.

3. 항공작전 오류

마지막으로 일본에게 있어서 대미 기본전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국가로서 일본의 국토는 협소하고 戰略縱深이 얇아 정치, 군사, 공업의 중추가 일정 지역에 집중한 대신, 연안에는 상륙이 용이한 평야가 있어 적의 공격에 대해 극히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게 있어서 안보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여 여하히 해양에 있어서 制海 및 制空權을 획득하고 유지하느냐였다.

특히, 일본의 지형이 태평양상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도서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태평양전쟁은 島嶼를 둘러싼 쟁탈전, 즉 미군의 상륙작전 및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防禦戰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예상되는 미국의 상륙에 맞서는 對상륙작전의 귀추는 항공격멸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요새화된 도서는 지상에 배치된 항공전력의 母基地로서 제해 및 제공작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전방 전개 不沈 航母로 기능할 것이었다. 이처럼 원격된 도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지방어 및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 해군은 항공전력 및 잠수함 전력을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일본은 소위 艦隊決戰 사상, 즉 피아의 주력함대가 맞서서 해전의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함대결전 사상과 ‘大艦巨砲’의 戰艦 위주의 전력이 발전된 것이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이 함대결전 사상은 일본 해군장교들의 머리 속에 깊이 새겨져 ‘大艦巨砲主義’라는 일종의 신성한 교리(doctrine)가 되기에 이르렀다. 러·일 전쟁 이후 아주 빠르게 발달하던 항공기가 전함의 위력을 이미 추월했다는 평가도 한 때 나왔으나 일본 해군의 주류는 여전히 해전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전함 위주의 함대결전을 통해 달성된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전함의 위력은 거기에 탑재된 주포의 사거리내에서 발휘된다.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이었던 야마토와 무사시에 탑재된 46cm 주포의 최대사정이 약 41,400미터(23海里)였다. 따라서 전함이 적 함정이나 육상목표를 타격하려면 그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 그런데 당시 일본 해군이 개발한 96式 육상공격기를 비롯, 항모에 탑재되어 있던 함재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기타 주요함에 탑재되던 수상기조차 행동반경이 최소한 150~200海里로 전함의 주포 사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었다. 더구나 전함이 항공부대로부터의 공격을 배제하고 적 함대와 결전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하려면 해당 해역에서의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항공기의 위력과 해상에서의 공중우세의 중요성이 분명한데도 일본 해군은 전통적인 大艦巨砲主義를 고집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 해군이 해전에 있어서 항공력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간과하고 태평양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일본 전쟁 지도부는 항모를 대신하여 ‘海上에서 制空權 확보’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基地 항공전력의 중요성을 중국사변 및 태평양전쟁 개전 초 몇 번의 전투를 통해 잘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진주만 기습에 이어 개전 이틀째인 1941년 12월 10일 싱가포르 부근 쿠안탄 연안에서 당시 영국이 자랑하던 東洋艦隊의 최신예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Prince of Wales)’와 순양전함 ‘리펄스(Repulse)’가 육상기지에서 출격한 일본 공격기에 의해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⁶⁸⁾ 항공기만으로 항행중인 전함을 침몰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이 사건은 일본 해군이 견지하고 있던 戰艦至上主義 및 함대결전 사상을 한때 뿌리째 흔들면서 항공전력의 가치와 해상에서의 항공우세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68)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레이 반도에 있던 영국의 항공기들은 개전 이래 3일 동안 일본 기의 공격으로 피멸상태에 빠져 영국의 동양함대를 호위할 수가 없게 된 상태였다. 木坂順一郎, 『昭和の歴史, 第7卷 太平洋戦争』, p. 44.

하지만 일본 해군은 여전히 ‘大艦巨砲主義’와 戰艦重視 방침을 전혀 버리지 않았고 오직 ‘聯合艦隊’의 전력강화에 주력하였다. 더구나 緒戰 이후 진주만 기습이라는 예상외의 전과에 자아도취됨으로써 항공전력의 가치와 해상에서의 항공우세의 중요성 및 효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즉, 緒戰에서의 예상치 않던 대성공에 도취된 일본 해군 지휘부는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에 있어서 항공우세’ 보다는 다시금 大艦巨砲의 전함을 주력으로 하는 함대결전 사상을 미국과의 해전에서의 기본목표로 견지한다.

이는 러·일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가져왔던 공세적인 艦隊決戰에 대한 일본 해군의 전통적이고 뿌리깊은 選好 외에도 미 해군과의 교전에서 단숨에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승산이 없는 소모전에 빠지게 될 것을 일본 해군 지휘부는 태평양전쟁 내내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미국에 비해 빈약한 국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미국이라는 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聯合艦隊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 해군은 단지 ‘激擊艦隊決戰’⁶⁹⁾이라는 한판 승부로 일거에 전세를 결정하겠다는 전략개념으로 戰艦 위주의 수상전투함대에 의존하여 전쟁에 임함으로써 결국 항모전력을 중시한 미 해군에 의해 참패를 면치 못한다.⁷⁰⁾ 위력이

69) 즉, 일본은 진주만 기습의 충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힘을 회복한 미 함대가 서태평양으로 전진해 올 때 일본 기동부대 및 기지항공부대의 전공격력을 집중하여 일거에 미 기동함대를 격파하고 곧이어 공격부대도 격파한다는 개념. 澤田保, “基地航空部隊はなぜ決戰に敗れ去ったのか”, 『陸戰研究』(1998年 4月), p. 40.

70) 岩澤雅榮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인으로 大艦巨砲를 주력으로 한 艦隊決戰을 중시하고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해상에 있어서 航空優勢를 경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岩澤雅榮, 『戰爭の理論, 日本防衛編: 防衛白書を考える』, 東京: 近代文藝社, 1996. 한편 당시 미국 역시 大英帝國 해군의 전통이었던 전함 위주의 공격적인 함대결전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일본에 의한 진주만 기습을 받고 항공전력의 위력을 실감한 뒤 빠르게 전력운용 개념이나 전력정비 방침을 전환시켰다. 특히, 미 해군은 일본군이 구축한 견고한 요새 도서기지를 우회(bypass)하면서 방어가 허술한 도서를 점령한 후 항공기 및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여 그 곳을 거점으로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연안 측면에서부터 일본 본토쪽으로 진공한다는 소위 개구리 도약(蛙跳)전략을 추구하였다.

날로 신장하던 항공전력은 주력인 수상함대의 보조전력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 해군의 세 가지 해양전략적 실착은 첫째, 섬나라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기본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하여 일본에게 유리한 평화를 미국에게 강요하려면 외부로부터 자원의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중시했어야 하나 이를 경시하였던 점, 둘째는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보다 공세적 통상파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단지 수상함대의 결전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잘못 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해양에 있어서 制海權을 유지하려면 해양에서의 制空權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 해군이 경시한 점이다.⁷¹⁾ 이 모든 실착은 공격정신만을 강조하고 방어를 경시하며 수상함대간의 결전으로 승리가 최종적으로 달성된다고 신봉하는 일본 해군의 함대결전 사상이 물고 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오늘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스스로의 임무를 '일본 영해 및 주변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로 하고 있다. 즉, 일본은 방위능력의 확보 뿐만 아니라 생존 기반의 유지를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VI. 結 論

지금까지 20세기 초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간의 해양전략적 경쟁관계를 돌이켜 보면서 당시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국가정책, 해양전략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건설 방향 및 실제 전쟁이 수행된 방식을 돌이켜 보았다.

71)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 pp. 566~575.

먼저 미국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해전에서 우세한 해·공군력(sea and air power)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자랑하던 지상전투력(land power)을 제압하겠다는 대일 오렌지계획을 입안하여 태평양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자국의 기본적인 해양전략으로서 견지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帝國國防方針에 있어서 해상전략의 기본으로서 艦隊決戰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1905년에 있었던 對馬海峽 근해에서의 러·일海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적(미국) 함대가 공격차 서태평양으로 진공해 오는 것을 邀擊하여 함대결전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구상이었다. 이 요격결전 구상은 1907년 4월 최초 책정되어 태평양전쟁 개전 직전까지 근본적으로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세계 해전사를 돌이켜 볼 때, 열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함대는 비교적 결전을 회피하고 자기의 근거지에 대기하여 現存艦隊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하려는 추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일본 해군은 열세한 함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미 해군에 맞서 결전을 벌일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같이 戰艦 중심의 결전방식이 근 40년 가까이 일본 해군에 의해 견지되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해전의 결정적 승리는 함대결전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마한의 艦隊決戰 사상에서 일본 해군이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고 戰艦에 대한 일본 해군의 절대적 신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일본 해군은 러·일 전쟁시 對馬海峽 해전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틀란트(Jutland) 해전과 같은 戰艦部隊간의 決戰이 장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⁷²⁾

요컨대 艦隊決戰 思想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 고착되고 유연성을 잃게 되면

72) 유틀란트 해전이 일본의 대함거포주의자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킨 배경은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戰史の教訓』, pp. 29~37에 잘 나와 있다.

서 일본 해군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일본의 대함거포주의 사상이 가져온 병폐는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체계를 정체시켰고 당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던 항공기 및 잠수함의 위력과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愚를 범하면서 결국 미 해군의 우세한 항공전력에 의해 압도당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일본 군부가 미국에 비해 자국의 근본적인 국력열세를 극복하고자 갖은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잠수함 전력도 잘못된 전쟁지도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 해군의 군사전략이 너무 편향되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해군 지도자들이 군사기술의 진보 및 그것이 해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찰력이 지극히 부족했던 점이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쓰라린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군사분야에서의 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의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보다 유연한 전략적 사고로서 우리만의 독특한 안보환경에 맞는 해양전략 및 전력구조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해전에서 결코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參 考 文 獻〉

1. 서 적

- 海軍本部,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 : 해군력 발전·건설과정을 중심으로』(대전 : 해군본부, 1997)
- 海軍大學, 『世界海戰史』(대전 : 해군대학, 1998)
- 源田實, 『眞珠灣作戰 回顧錄』(東京 : 讀賣新聞社, 1972)
- 高橋辰雄, 『護衛船團戰史 : 日本商船團武器なき戦い』(東京 : 圖書出版社, 1989)

- 岩澤雅榮, 『戦争の理論, 日本防衛編 : 防衛白書を考える』(東京 : 近代文藝社, 1996)
- 木坂順一郎, 『昭和の歴史, 第7巻 太平洋戦争』(東京 : 小學館, 1989)
- 奥宮正武, 『眞實の日本海軍史』(東京 : PHP 研究所, 1999)
- 奥宮正武, 『大艦巨砲主義の盛衰』(東京 : 朝日ソノラマ, 1989)
- 外山三郎, 『大東亞戦争と戦史の教訓』(東京 : 原書房, 1978)
-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戦史』(東京 : 原書房, 1979)
- Kent Roberts Greenfield, *American Strategy in World War I : A Reconsideration*(Florida :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63)
-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Asia and the Pacific*(London : Longman, 1992)
-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1)
- Sidney C. Moody, Jr., *War against Japan*(Novato, California : Presido Press, 1994)

2. 論 文

- 平間洋一, “建艦計画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2回 美國海軍篇”, 『丸』(1995年 7月)
- 平間洋一, “建艦計画から見た比較『海上防衛論』入門, 第1回 日本海軍篇”, 『丸』(1995年 6月)
- 平間洋一, 日本海軍の潜水艦戦を斬る, 『世界の艦船』(1999年 1月)
- 亀井浩太郎, “美國の對アジア・太平洋軍事戦略”, 『軍事研究』(1999年 1月)
- 中川務, “畫餅に終わった日本海軍の美渡洋艦隊迎撃決戦陣形”, 『世界の艦船』(1996年 10月)

- 中川務, “軍艦史上の珍軍艦”, 『世界の艦船』(1999年 9月)
- 北林雄明, 潜水艦は海戦をどう変えたか, 『世界の艦船』(1999年 1月)
- 澤田保, “基地航空部隊はなぜ決戦に敗れ去ったのか”, 『陸戦研究』(1998年 4月)
- Eric Grove, “A Century of Seapower”, *Jane’s Navy International* (November/December 1995)
- James W. Hammond, Jr., “We are Products of 1898”,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August 1998)